

#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세계와 패션계에 미친 영향(Ⅰ) - 1950년대를 중심으로 -

이영재·박민여\*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ndy Warhol's Activity and His Influence on Fashion - in 1950s -

Young-Jae Lee · Meeg-Nee Park\*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ung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 Kyunghee University\*

### ABSTRACT

Andy Warhol is one of the great artists in the modern history of art who compares favorably with Picasso. His activities had his object on pervasion of a pop art and profit of the art industry. Many previous studies on his activities have attracted and held the attention of his works of art after 1960s. However, in spite of his working as publisher of a fashion magazine, fashion illustrator, fashion model, display, and etc. in 1950s, there are few studies on his activities of 1950s.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his works of art in 1950s and intensively analyzes his effect on modern fashion.

In 1950s, Andy Warhol had already been distinguished in works of art from other commercial designers through the illustration for advertising design, window display of stores, and usage of Hollywood stars as an essential element in his works for whom he had sighed when he was young. His works were also characterized by a rejection of the originality of commercial arts. He had a great effect on youth's fashion in 1950s and 1960s. Their fashion style and images, at that time, were progressive and opposite to a mainstream of pop cultures, which caused industry manufacturers and consumers to understand their subculture. As a result, it is concluded that Andy Warhol took the lead in the fashion in 1950s and his activities in 1950s had influence on the diffusion of the public punk fashion in 1970s and the street fashion in 1980s.

Key Word : Pop art, Popular star, Commercial artist, Fashion leader, Image of Hollywood, Mass culture  
(팝 아트, 대중 스타, 상업 디자이너, 패션 리더, 할리우드의 이미지, 대중 문화)

## I. 서 론

현대 프랑스 미술사학자 Pierre Francastel은 “미술은 한 시대나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한다”고 말하였다. 미술가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는 미술활동을 포함한 지적인 노력이 한 사회, 한 시대의 생활상 그 자체인 것이다.<sup>1)</sup> 이렇듯 미술이 사회의 범주 안에서 독특한 양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문화 전반에 있어서 각 개별 분야간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시대의 문화 안에서 미술과 패션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위와 같은 상호 관련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미 여러 관련 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현대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중 문화이며, 복제 이미지가 대량 생산된 문화상품들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복제 이미지가 대량 유포되기 시작했던 것은 1960년대 팝 아트에서부터 비롯되었고, 패션에 있어서도 1960년대 팝 아트에 영향을 받아 헬리우드 스타들이나 스포츠 영웅들의 얼굴이 프린트된 T-셔츠가 나오기도 했다.

팝 아트 운동은 대량 생산과 그에 따른 소비문화가 활발하였던 미국사회에서 영국보다 한층 더 심화되어 갔다. 1960년대 미국 사회는 급속도로 발달

되는 산업의 영향으로 대중문화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점차 문화의 중심부로 부상되기 시작한 일반 대중은 많은 사회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심요인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엘리트 계급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미술의 주체가 거대해진 대중으로 바뀌어 새로운 문화 소비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sup>2)</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앤디 워홀은 미국을 대표하는 팝 아트 작가로 미술계의 첫 번째 팝 스타라 일컬어지면서 평생을 세상 사람들의 주목 속에 살다 1987년 AIDS로 태계하였다.

그는 팝 아트의 선두적 작가일 뿐만 아니라 화가, 사진작가, 저자, 철학자, ‘인터뷰(Interview)’잡지의 출판업자, 텔레비전 프로듀서, 영화 제작자, 사교계 명사, 디스플레이어,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모델-그가 죽기전 마지막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도 1987년 1월 뉴욕의 터널클럽에서의 패션쇼 모델로서이다.- 등 일생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와 명성을 누렸고, 상업주의와 출세 지상주의, 예술 작품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부정, 작가의 수작업(Authorship)에 대한 무관심, 끝없는 반복을 통한 작품의 유일무이성 부정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3)</sup>

앤디 워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이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실크 스크린 기법을 도입한 팝 아트 작품에 대한 연구이다.<sup>4)~11)</sup>

1) 루시 스미드, 김춘일(역), 「현대미술의 흐름: 1945년 이후」, 미진사, 1992.

2) Alloway, Modern Dreams: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Pop, New York: The Clocktower Gallery, 22 October 1987, p31.

3) 강태희, ‘앤디워홀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월간미술」12월호, 1992, p.92~95.

4) 박형동, ‘앤디워홀 회화에 나타난 반복적 이미지의 특성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5) 한명호, ‘팝아트에 있어서 이미지의 대상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6) 유태수, ‘팝아트의 표현과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7) 백문희, ‘실크스크린기법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8) 유정아, ‘현대섬유미술에 나타난 팝아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9) 양종석, ‘미국 팝아트와 매스미디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1950년부터 1960년대 회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0) 정혜선, ‘팝아트가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구미패션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1) 김봉수, ‘미국의 팝아트에 관한 연구 -대중문화적 측면에서의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그가 패션계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종사하였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등 유명 디자이너들과 친분 관계를 통해 그들의 작품에 영향을 줄으로써 그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이 실제로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그의 작품 세계와 미학적 특징 및 업적을 연구하고, 현대 패션의 리더가 연예인, 패션모델, 정치인, 스포츠인 등 대중 스타뿐 아니라, 화가가 본업이었던 앤디 워홀도 패션 리더로써 큰 역할을 하였음을 심층 분석함으로서 미술 분야가 패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 있다.

연구 방법은 그의 작품이 실린 전시회도록, 단행본, 관련 논문 등 문헌연구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고, 패션과 관계된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1950년대의 작품세계와 패션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1950년대는 워홀의 작품활동 초년기로써 상업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인정을 받았던 시기이지만 워홀의 작품연구에서 늘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시기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순수미술로 급격히 전환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들을 제작하게 된다.

## II. 앤디 워홀의 성장 배경과 작품활동

### 1. 성장배경

앤디 워홀은 미국 펜실바니아의 공업도시 피츠버그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가난한 이민 1세이며 탄광 광부였던 아버지와 색소 결핍증으로 안색이 창백하며 몸이 약했지만 창의적인 미적 감각이 풍부한 어머니 사이에서 1928년 태어났다. 어머니의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워홀은 어린 시절에 색

소 결핍증과 신경질환으로 몇 달씩 침대에 누워 색칠을 하거나 종이를 오리면서 병약하게 보냈다.<sup>12)</sup>

여려서부터 유난히 통속적인 의미의 사회명사가 되고 싶어했던 그는 연예인이나 유명작가를 흡모하여 영화배우의 사진을 모으거나 펜클럽에 가입하는 등 열정을 보였으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려는 욕구는 성공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헬리우드 스타들의 사진이 후에 그의 작품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림 1>은 워홀이 수집한 마릴린 먼로의 사진으로 얼굴 부분만 따와서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응용되었다. <그림 2>는 1962년 작품으로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던 1960년대에 제작되었고 이와 함께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비스 프레슬리 등 스타 초상화를 실크 스크린 기법의 작품 소재로 사용하며 팝아트 작가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림 3>은 1990년대에 들어서 이탈리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직접 도입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카네기 인스티튜트 컬리지(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에 입학해 디자인을 전공한 워홀은 상업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꿈을 키우며, 상업디자인을 위한 회화와 디자인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다. 교



<그림 1> 워홀이 수집한 마릴린 먼로의 사진

THE WARHOL LOOK, 1997, p.45

12) 최효준, '앤디의 세계를 그대로 보기' 「앤디워홀」, 호암미술관, 1994, p11-17. Klaus Honnef, Andy Warhol: Benedikt Taschen, 1993, p7.



<그림 2> 청록색 마릴린 (Turquoise Marilyn),  
『앤디 워홀』, 1994, p.21



<그림 3> 지아니 베르사체가 디자인 한 “마릴린” 드레스,  
1991년 S/S Collection, THE WARHOL LOOK, 1997, p.51

수들 중 절반은 그를 미술학도로서 명석하다고, 반은 최하의 학생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학우들은 한결같이 말이 없고 조용한 청년으로 그를 회상하고 있으며, 그의 스승 중 한 명은 워홀을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피하는 내성적이며 작고 마른 소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sup>13)</sup>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가톨릭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이러한 성향 덕분에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대학 졸업전까지 살았던 피츠버그 시절에 진리로 여겼던 계급, 인종, 성에 대한 편협된 인식들이 뉴욕의 세계인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개방성에 의해 허물어졌고, 뉴욕에서의 워홀은 자신과 동료들 - 프레드 휴지(Fred Hughes), 할스톤(Halston), 에디 세윅(Edie Sedgwick) -과의 공동생활의 즐거움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내면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 안에서 재창조하며 작품 제작에 몰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이 그의 평생 이어져 보통사람들의 결혼생활이 앤디 워홀에게는 별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그가 생전에 이루하였던 많은 숫자의 작품들은 작품제작에만 몰입할 수 있었던 공동생활 속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 2. 1950년대 작품활동

1950년대 앤디 워홀의 작품 활동은 삽화, 광고 캠페인 및 카드 디자인, 디스크 자켓용 표지, 구두광고, 상점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후 그는 1952년, 1954년, 1956년, 1957년, 1959년 등 5차례에 걸쳐 상업 디자이너로서 명예로운 아트디렉터 클럽(Art Director Club)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상업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다.<sup>14)</sup>

카네기 인스티튜트 재학시절에 'The Broad Gave Me My Face, But I Can Pick My Own Nose' 작품을 피츠버그 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에 출품하여 처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48년 Truman Capote의 소설 *Other Voices, Other Rooms*의 표지에 실린 카포테의 사진을 본 후부터는 그에게 열중하게 된다. 이는 그의 성장기에 헬리우드 스타들을 우상시하여 집착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Gary Garrels, ed., *The Work of Andy Warhol*, Bay press, 1989.

14) Paul Gardner, 'Gee, What Happens to Andy Warhol?', *Art News* 79, Nov. 1980, p75.

1949년 대학 졸업 후 워홀은 뉴욕에 진출하여 상업 디자이너로 출발하였다. 동년 9월에는 *Glamour*라는 사진 잡지에 그의 첫 작품을 출판하였는데, 이 작품은 의자 위에 놓인 5켤레 구두와 'Success is a job in New York'이라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워홀 자신에 대한 예언 형식이며, 그 시대를 풍미했던 모더니즘의 논쟁을 무시하는 스타일로 대도시 뉴욕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소박한 대중의 꿈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sup>15)</sup>

1950년 2월 그의 나이 23세에 맨하탄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여 무용가, 작가, 화가 등과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 때부터 2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50년대 말까지 8번의 전시회와 7권의 책을 발행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으로 상업 디자인계의 대가로 성장한다. 1952년 6월 뉴욕의 유고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는데, 카포테의 저작에 기초를 둔 15점의 그림을 전시하였다. 또한 신문광고 미술에서도 타월함을 인정받게 된다.

다음해 워홀은 렐프 워드(Ralph Ward)와 함께 「A는 알파벳이다」라는 첫 선전용 책을 발행하여 아트 디렉터들에게 기증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선전용 책을 발행하였다. 이즈음 머리를 은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으며, 연극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55년에는 Ralph Pomeroy와 함께 만든 신발시리즈 '잃어버린 구두를 찾아서'를 발표하였고, 어린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 '내 정원 바닥에서'를 제작하였다. 1956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미국 서부도시와 하와이, 동남아, 인도, 유럽까지 세계 일주를 하여 후의 작품활동에 있어서 유용한 경험 이 되었다.

1957년 30세가 된 워홀은 신발과 모자광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영리사업을 위해 회사

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59년 Lexington가의 4층 짜리 집으로 이사하였는데 이는 워홀이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을 의미한다. Suzie Frankfurt와 함께 유머러스한 요리책 「산딸기」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1960년 그의 나이 33세에 기존의 상업미술 대신 순수미술로 급격히 전환하여, 1965년 영화에 몰두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다.

생전의 워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으며, 그런 중에서도 많은 젊은 미술가들이 그를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는 평론가들이나 미술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의 작품이나 작가적인 위상에 대한 평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의 미술사적 업적을 정리해 보고자 최근에 개최된 학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의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주제로 학술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현대 미술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작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16)</sup>

### III. 앤디 워홀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 1. 구두광고를 위한 디자인

패션잡지 *Haper's Bazaar*에 실은 구두 광고 일러스트는 작은 향수병 10개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1960년대에 등장하는 그의 반복기법을 도입한 팝 아트 작품의 특성을 미리 관찰 할 수 있는 작품이다. 1955년 패션잡지 *Mademoiselle* 4월호에 실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MGM사에서 제작한 신데렐라 이야기인 '유

15) Richard Martin, *THE WARHOL LOOK GLAMOUR STYLE FASHION: Illumination*, New York: A Bulfinch Press Book, 1997, p70-71.

16) 오진경, '앤디 워홀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이미지의 반복',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993 제 5집.

리구두(The Glass Slipper)'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화 이야기를 적절히 인용하였으며, 시작과 끝 부분에 스타들을 등장시켜 천진난만하고 해학적인 팝한 이미지로 <그림 4>와 같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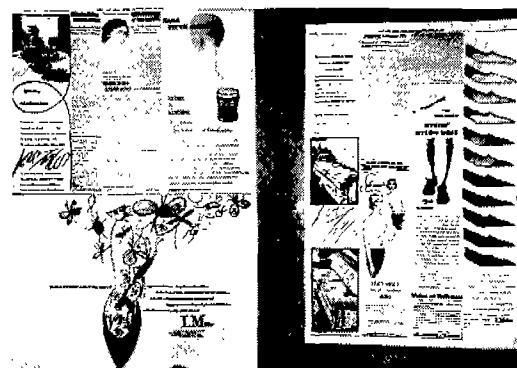


<그림 4> 워홀의 '유리구두(The Glass Slipper)' 일러스트레이션, *THE WARHOL LOOK*, 1997, p.78

워홀은 구두에 대해서 패티쉬(fetishes: 물신론적, 성적 우상화)적 사상기반을 갖고 구두를 사치품으로써 제작하였다. 그는 5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구두 광고 스케치에 열중하였는데, 그의 고객인 I. Miller를 위한 'This Is the Well-Heeled Look of Fashion(1955)'에서는 구두 뒤 축 중심으로부터 일정하게 보이는 부채 모양을 표현하여 비잔틴의 화려함을 디자인한 구두를 제작하였다. 그는 구두를 조각품처럼 구성을 하였으며, 흔히 볼 수 있는 구두와는 차별되는 패션의 대상이며 우상으로 표현하였다.

1950년대 미국 구두 제조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밀러와 David Evins를 꼽을 수 있다. 즉 이들은 당시를 풍미했던 구두 디자이너이며 제작자였다. 예반스의 경우 할리우드의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에바 가드너 등의 여배우에서 영부인인 마미 아이젠하워, 낸시 레이건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고객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그의 구두는 뉴욕에서 비싼 제품으로 알려져 일반 대중에게는 친숙하지 않았다.<sup>17)</sup>

이에 반해 워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였던 밀러는 구두 광고 그림들을 TV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렸고, 할리우드의 패션과 워홀의 상업적 구두디자인이 함께 융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대중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강조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대중문화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었다.<그림 5>



<그림 5> I. Miller를 위한 맨디 워홀의 구두광고, 1955-59, *THE WARHOL LOOK*, p.73

1955년부터 밀러를 위한 그의 구두 일러스트레이션이 색다른 감성을 반영한 작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금채색을 도입하여 황금만능의 미국 사회와 워홀의 일련의 작품활동을 통해 보여준 부를 추구한 상업지상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1956년 작품 'To All My Friend'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두는 그에게 있어 단순히 일러스트로 표현되는 디자인 작품 이상의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 2. 할리우드의 이미지(Images of Hollywood) 가 반영된 디자인

워홀 툭의 이미지 근원은 할리우드였다.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이미지의 요소 -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 빛 -들이 영화나 사진에 의해서 포착되었고, 명성과 미를 얻고자 하였던 열망이 할리우드 스타들

17) Linda O'Keeffe, SHOES, NEW YORK: WORK MAN PUBLISHING, 1996, p.208-211.

사진의 페티쉬적인 수집을 통해 나타난다. 경제공황기에 피츠버그에서 성장한 앤디 워홀은 헐리우드의 매력에 도취되어 그의 꿈과 이상을 키워 나갔다. 청년기에도 지방 영화관에서 보았던 스타들의 명성, 스캔들, 아름다움, 부의 매력에 매료되어 있었다. 워홀은 1960년대까지 Marilyn Monroe, Elizabeth Taylor, Greta Garbo, Kim Novak, Brigitte Bardot의 기사나 사진을 수집하여 파일로 정리하였으며, Jean Harlow가 입었던 의상과 Clark Gable이 신었던 신발을 포함하여 스타들의 유품까지도 수집하였다.

스타에 대한 동경이 예술 영역에서는 당시 저속한 멤피스(Memphis) 가수라고 지칭하던 Elvis Presely에 대한 표현으로 이어졌다.

한편, 워홀이 수집한 헐리우드 스타들의 스릴사진을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자 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사진 그 자체로 발표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스타들의 사진에서 이미지를 발췌하여 실크 스크린 작품으로 제작하였는데, 주로 스타들의 화려한 이면 뒤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풍자하였다. 즉, 앞면에 부각되어지는 스타들의 시대의 매혹적인 미의 이상과 그 뒷면에 숨어있는 스타들 개개인의 삶의 그늘을 표현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합성하였다.<sup>18)</sup> 1980년대에 이르러는 응장한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상으로 제작되어 모델 또는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입혀졌다. 한편, 그의 헐리우드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그 자신의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어 직접 영화를 제작하게 한다. 1963년 ‘잠’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16개 정도의 영화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영화계에서는 앤디 워홀을 전위영화의 중요한 혁신자로 평가하고 있다.<sup>19)</sup>

요컨대 그가 예술가로써 명성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헐리우드 스타들을 작품 소재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미학적인 스타일의 변신과 새로운 주제나 소재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데 있다. 마릴린 먼로나 리즈 테일러를 표현하였고, 이후에는 헐리우드 스타가 아닌 꽃과 재앙 시리즈로 그의 영역을 넓혔다. 후에 이 둘도 의상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 3. 원도우 디스플레이를 위한 디자인

1950년대 뉴욕의 Macy와 Lord Taylor, 클리블랜드의 Halle Brother,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Marshall Field 등 미국내의 비교적 좋은 백화점들의 공통점은 아르데코(Art Deco) 스타일과 현대 프랑스 그림의 미술 전시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시된 미술품들은 기능성을 강조한 특성화된 스타일로 구성되어 그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의 디스플레이 연출가였던 Gene Moore는 뉴욕의 22개의 원도우를 감독하였다. 그는 그전까지 풍미하였던 초현실주의를 세련되며 명랑하고 무관심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였고, 워홀을 비롯한 무명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원도우 디스플레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팝 아트의 대표적 작가로 불리고 있는 앤디 워홀과 Jasper Johns, Robert Rauschenberg, James Rosenquist 등은 원도우를 장식하는 일을 하였다.<sup>20)</sup>

워홀이 무어에게 Bonwit Teller 백화점 원도우 디스플레이를 부탁받았을 때, 그는 이미 성공한 상업 디자이너였다. 워홀의 원도우 디스플레이에는 깨끗함과 천진난만함으로 당시의 다른 원도우 디스플레이와는 차별화되었고, 선은 대담했으며 우아하였다. 향수를 광고한〈그림 6〉의 원도우 디스플레이에

18) Barry Paris, THE WARHOL LOOK:15 Minutes, But Who's Counting? Andy Warhol and His Icons, New York: A BULFINCH PRESS BOOK, 1997, p.38.

19) 김세준, 「앤디워홀, -앤디워홀의 영화-」, 호암미술관, 1994, p.127-129.

20) Judith Goldman, THE WARHOL LOOK:Windows, A Bulfinch Press Book, 1997, p.111-116.

서 로맨틱한 낙서 - 심장, 꽃, 사랑에 빠진 큐피트 - 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앞서의 초현실주의자같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낭만적이며 매혹적인 것이었다. 그의 첫 팝 페인팅이 전시되었을 때부터 그의 작품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넓은 대중의 의식에 순조롭게 들어갔었다. 그만큼 그의 디스플레이에는 제품을 아름답게 상품화하는 힘이 있었고, 상품들을 잘 팔리게 하는 상업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그림 6> 앤디워홀의 Bonwit Teller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 1955, THE WARHOL LOOK, p.73

#### IV. 앤디 워홀이 패션계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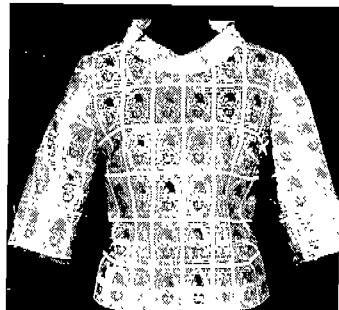
##### 1. 패션디자인

패션에 있어서 워홀의 역할은 제작자가 아닌 관찰자였다. 즉, 그는 패션 작품에 구어체의 견고한 은유를 사용하였으며, 시각적 즐거움에 기초한 관찰력으로 패션의 특수성을 나타냈다. 물론 자신의 작품을 그대로 프린트한 소재로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의상을 제작하여 선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 제작자의 입장이 아닌 일회적인 것이었다.

패션잡지 *Vogue*의 편집자 Diana Vreeland는 워홀 패션의 특수성을 '매혹적인 자극'이라 불렀다. 한편 워홀은 패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Victor Hugo, Halston, Yves Saint-Laurent, Tina Chow,



<그림 7> Andy Warhol, Brillo Box dress and Fragile dress, 1964 THE WARHOL LOOK



<그림 8> Andy Warhol, S&H Green Stamps blouse, signed by Warhol on left sleeve, 1963 THE WARHOL LOOK

Giorgio di Sant' Angelo와 같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 세계를 탐구하기도 하였다.

McCall을 위한 디자인 'Who's Who in Holiday Hat'에서 패션작품에 대한 그만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 모자들은 각각 뚜렷한 개성과 형태를 갖고 있다. 과거의 추억과 현대적인 특성을 잘 혼합하고 있으며, 기존의 스타일이었던 권위와 보편성으로부터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캐주얼하며 액세서리를 달지 않았던 단순한 스타일의 외복이 유행한 1958년경의 패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워홀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 복제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대중적인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sup>21)</sup> <그림 9>는 워

21) Patricia Baker, FASHION OF A DECADE THE 1950S, New York: Facts On File, 1991. p.12.



<그림 9> 앤디 워홀의 패션화 Andy Warhol, Fashion 10, 1950s, *THE WARHOL LOOK*, p.94.

홀의 패션화로 당시 패션 경향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그림 10>은 워홀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림으로 단순한 의상 디자인과 로맨틱한 액세서리의 표현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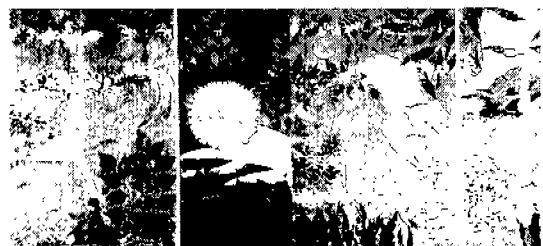


<그림 10> 앤디 워홀의 패션화 Warhol's portfolio, 1950s, *THE WARHOL LOOK*, p.89.

1950년대 가장 유명한 오뜨꾸찌르 디자이너는 파리의 Christian Dior과 Christobal Balenciaga였다.<sup>22)</sup> 디올은 1947년 뉴룩을 발표하여 선봉적인 인기를 얻은 후부터 1957년 사망하기까지 탁강한 힘을 발휘한 패션계의 독보적인 존재였고<sup>23)</sup> 발렌시아가 역

시 당대를 풍미했던 스페인 출신의 디자이너로 의복을 직접 제작하여 테크닉의 완성도를 높인 전정한 꾸찌리에였다. 영국의 사진작가 세실 피튼경은 디올을 회화의 왓트로 발렌시아가를 모드의 피카소로 비교하였다.<sup>24)</sup> 이 시기에 위홀의 패션 취향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패션분야의 비전문가였기에 패션예술로 불려질 만큼 우수한 오뜨꾸찌르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평범하지 않으나, 대중적인 경향은 1950년대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위홀의 놀라운 패션 재능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영부인인 아이젠하워 부인의 비엘리트적인 의복 취향을 통해서도 미국 패션의 대중 취향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파리의 오뜨꾸찌르를 ‘파리에서 비롯된 원조(Paris Original)’라 하는데 비해, 미국 패션계를 대표하고 있는 Ralph Lauren, Donna Karan 등 ‘미국 출신 디자이너(Homegrown American)’ 스타일은 비 엘리트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더욱 미국적이면서도 위홀의 작품 특성과 일치하는 대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출신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 제작자로 Giorgio Armani 또한 엘리트적인 오뜨꾸찌르와는 다른 대량생산 의미로의 복제성과 개성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그림 11>은 1955년 패션쇼 무대배경을 위한 위홀의 그림으로써 숲속의 동물 표현이 해학적



<그림 11> 워홀의 패션쇼 무대배경 디자인(1955), *THE WARHOL LOOK*, p.95.

22) Patricia Baker, *op. cit.*, p.40.

23) 앤디슨, 블랙 매취가랜드, 윤길순(역), 「세계패션사 2」, 자작 아카데미, 1997, p.207-210.

24) 김종복 편저, 「세계 패션디자이너 131인의 패션철학과 작품세계」, 도서출판 시대, 1989, p.54

이면서도 낭만적인 동화풍으로 묘사되어 있다.

##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써 위홀은 그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 디올의 주 이미지 메이커였던 당대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Rene Gruau는 당시 여성복의 일류 브랜드였던 미스 디올을 위해 비유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였다. 표범의 발 위에 유혹적인 여성의 손과 향수를 구성하여 신성한 동물의 야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부채를 들고 있는 우아한 손은 문명을 상징하는 장갑을 끼고 있으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은유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진수를 창조하였다. 이에 비해 위홀은 냉소적인 위트와 생략, 동일성의 기법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위홀의 이미지는 미스 디올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림 9>에서 보여지는 'Leg in Red High Heel'에서 위홀은 개성이 없고 전형적인 신체의 한 부분으로 여성의 다리를 표현하여 빨간 힐을 부각시켰다. 마티스의 'Dance'을 참고하여 제작한 'Carnet de Bal by Revillon(1959)'는 당시에 진부한 인용형식으로 지루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되었으나 주제부각을 위한 표현의 절제와 은유적 암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Madame Rubinstein'(1957)에서는 위홀은 펜과 잉크로 그런 인물상으로 여성적인 우아함을 표현하였으며 향기로운 꽃의 세계를 묘사하여 감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어렵잖은 형태를 직선의 간결한 특징으로 묘사했던 작품이 'Fame Dean'(1955)이다. 비록 도식적이지만 머리를 절개해 나누어 표현한 아이디어는 깊은 통찰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Fame Dean'에서 던은 영화 '이유없는 반향'의 주인공 제임스 던이다. 제임스 던이 마치 잡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죽은 스타에 대한 아쉬움과 갈망을 표현하였다.

너리를 도형화하였으며 해골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얼굴과 목의 흉골선 묘사가 삶과 죽음을 구분짓는 은유적인 암시로 보여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로 등장하는 위홀의 죽음과 재앙 시리즈를 미리 보는 것같은 구성으로 죽음의 차가 벽에 부딪친 모습과 짹이 트는 하트 모양의 나뭇잎은 이미 죽은 이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이와 무관한 듯 반복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등 자연과 인생의 순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50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사실적 묘사와 그 이면에 깔린 가치관이 은유적 암시로 나타나고 있다.

## 3. 패션 리더로써의 위홀

위홀의 외복 스타일은 변화무쌍했으며 유행의 관례적인 정의에 순응하지 않았고, 유행의 선두 그룹으로 알려진 예술가들과도 차별화되었다. 즉, 자신의 외복 스타일 연출에 있어 주체성을 변화시켜 카멜레온같이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시간과 장소를 인식하며 미묘한 개성을 추구하였다.

10대 시절에 위홀의 옷차림과 말투는 아주 독특했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지만, 다양하고 독특한 외복 스타일의 연출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였다.

20대의 위홀은 50년대 뉴욕 도시 생활에 영향을 받아 그 나름의 룩을 형성하였다. 그의 친구인 레리아 데벳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독신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기뻐했던 위홀의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그는 코를 성형수술하였고 가발을 착용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려 하였으며, 이런 행동들로 미루어 보아 외모와 스타일에 대한 미적 관심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 수 있다. '누더기를 입은 앤디(Raggedy Andy)'로 뉴욕 메디슨 거리를 활보했는가 하면, 1956년 첫 해외여행에서는 테일러드 수트 정장으로 발쑥하게 차려입기도 했으며, 카페 세렌디티에서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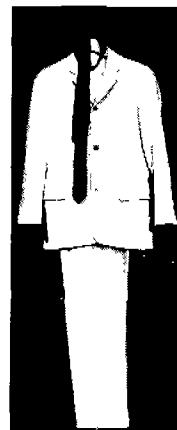
린 세계주의자들의 모임에서는 명랑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차려입기도 하였다. 패션모델로서의 위홀은 권위와 힘을 나타내기 위해 검정옷을 입었다.<sup>25)</sup>

사회 제도로서의 패션, 특징적인 기쁨을 주는 패션, 한 계절에 단명하는 패션,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패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위홀의 의복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가 활동했던 그룹에서 인위적인 감각과 한계를 넘어서 반역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예술을 추구함으로서 독특한 스타일과 룩을 창출하는 티더로씨의 기쁨을 즐겼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1950년대의 상업디자인, 1960년대의 회화와 영화, 1970, 1980년대의 사진이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드러난다.

한편, 위홀의 룩을 창출해주었던 의복 스타일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물 이외에도 위홀만의 개성적인 이미지가 영화, 사진,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표출되었다. 특히, David McCabe, Billy Name, Nat Finkelstein과 같은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진작가들에 의해 남겨진 사진들은 위홀의 룩을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사진들은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홀 세계의 신비한 환상을 전달해 주며 위홀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하여, 그는 미술계의 동료들 중 유일하게 인기있는 유명인이 되었으며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일인자가 되었다. 그만의 개성적인 의복 스타일들은 그의 동료들도 그와 함께 같은 이미지로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여 유행의 선두 그룹이 되었다. 특히, 1963년에서 1968년까지의 은빛 공장(Silver Factory) 시기 동안 위홀과 그의 동료들의 의복 스타일 및 작품활동이 대중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은 반복해서 유행되었고, 오뜨꾸찌르의 디자이너에 의해 참고되었으며, 고가품의 신사복 차림을 거부하는 젊은이들

에게 거리 패션(Street Fashion)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림 12> 1950년대에 위홀이 입었던 의상,  
THE WARHOL LOOK, p.22



<그림 13> 1960년대에 위홀이 입었던 의상,  
THE WARHOL LOOK, p.24

위홀의 룩은 계속해서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인기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패션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잡지나 영화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I Shot Andy Warhol or Basquiat'와 같은 영화에서 최근의 패션으로 재해석된 위홀의 독특한 룩이 보여졌다. 1975년 그가 창조한 '컵-업 드레스(Cup-up dress)'는 후에 레이 카와쿠보나 마틴 마지에라의 '비구성' 드레스에 영향을 주었다.<sup>26)</sup> 즉,

25) Mark Francis and Margery King, THE WARHOL LOOK, p.26.

26) Mark Francis and Margery King, Ibid, p.27.

앤디워홀이 해체주의 패션의 전조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같이, 현재 패션계에서는 아방가르드 예술과 헐리우드의 영향을 받아 전위적인 패션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앤디 워홀이나 Candy Darling, Jean-Michel Basquiat와 같은 예술가들의 당시에는 터무니없고 도발적인 예술품들이 지금의 Jean-Paul Gaultier, Stephen Sprouse, John Galliano, Alexander McQueen과 같은 패션디자이너들의 매장에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계와 패션계는 새로운 것의 재창조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현재에는 잡지와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재창조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에 의한예술의 보급에 시발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앤디 워홀이다.

1969년 그의 나이 42세에는 월간잡지 인터뷰를 창간하여 패션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워홀과 그의 동료들이 착용하였던 의복 스타일의 이미지가 팝 문화의 주된 흐름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까닭에 패션 산업체 제조자들과 대중 소비자들은 이러한 루리를 통해 하위문화를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었다. 나아가 1970년대에 등장하였던 평크패션과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스트

리트 스타일의 대중 확산에 시발점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즉, 워홀은 1960년대 이후의 미술계를 선도하였던 것처럼 그가 착용했던 의복을 포함한 패션 스타일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앞서 패션 리더로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것이다.

<표 1>은 1950년대 앤디 워홀의 작품세계와 그 특성을 그가 활동하였던 상업디자인 분야와 패션디자인 분야로 나누어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조형적 특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1950년대 미국사회는 2차대전의 승전국으로써 경제적인 발전이 가속화되어 대중중심의 소비문화가 발달하게된다. 물질 문명이 가져다 주는 혜택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였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의 진보가 이룩한 영상 산업의 태동과 확산이 헐리우드의 활성화를 가져와 스타에 대한 우상화가 출세 지상주의를 만연하게 하였다. 패션계의 경우 크리스찬 디올을 비롯한 과리의 오뜨꾸뜨르 디자이너들의 영향력이 막강하였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출신의 디자이너들의 대중시장을 겨냥한 패션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앤디 워홀은 상업 디자인계를 주활동 무대로 삼아 패션 관련분야에서 일하였는데 일련의

<표 1> 1950년대 앤디 워홀의 작품 세계와 그 특성

제반현상 및 특성		활동분야	상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배경적 특성	사회적	2차 대전 종식 후 소비 문화의 발달	크리스챤 디올의 전성시대와 미국 출신 디자이너의 등장	
	사상적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	명성과 아름다움 (헐리우드 스타)에 대한 패티쉬	
조형적 특성	사용 소재	낙서 (Graffiti), 천사	헐리우드 스타의 초상, 꽃이나 우아한 이미지	
	미적 특징	동화적 낭만성, 상징주의, 해학성	상징주의, 유미주의, 은유적 암시와 질체미	
	색감	가는 선의 사용과 부드러운 환한 원색 계열의 색조, 금채색	카키색, 갈색등의 부드럽고 탁한 중간 색조	
	1950년대 이후 앤디 워홀이 영향 미친 장르	팝 아트	펑크 패션, 아방가르드한 스트리트 패션, 해체주의 패션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조형적인 특징은 팝아트적인 간결함과 동화적 낭만성, 해학성, 상징성을 뽑을 수 있겠다. 한편 그와 그의 동료들의 의복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개성적인 톡들은 패션 리더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독특한 스타일은 짧은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트리트 스타일로 정착되었다. 나아가 전위적인 평크 패션이나 헤체주의 패션에까지 그 영향력을 전파하였다.

#### IV. 결 론

앤디 워홀은 팝 아트라는 미술사의 한 획을 그어 피카소 이후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순수 미술분야에 상업성을 도입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고, 이는 그 동안의 미술품이 상류층에게 국한되어 왔던 특별한 것에서 대중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통적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의 팝 아트적인 작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가 패션계에 종사하여 많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특히 작품 활동의 초년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에는 구두 광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백화점 원도우 디스플레이, 패션쇼 무대 디자인등 패션 관련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상업 디자이너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아트 디렉터 클럽'상과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로부터 수상하기도 하였다. 워홀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미적 특성으로는 특유의 은유적 암시와 절제미로 상징적인 경향을 보이고, 동화적인 낭만성과 풍자적인 해학성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섰다.

워홀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대중매체에 도발적인 개인의 정체성을 표출하였다. 작품 소재로 사용되었던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진, 소비자들의 생활 필수품인 물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상처 부정이의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 팝아트의 진수로써 재창조되었다. 그는 일생동안 창의력이 돌보

이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비록 그가 예술 활동을 통해 달성했던 전정한 내용과 예술적 가치의 애매 모호한 점과, 그의 작품들이 화려한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발표되어 상업주의와 출세 지상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지만, 그의 위대성은 그가 열렬하게 새로운 것을 찾았고, 상류사회와 하위문화 양쪽 다 대혹시켜 문화의 주체자로 흡수하였으며, 도시의 현란함과 미술세계의 진지함에 부정과 경멸에 찬 도전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있다.

한 시대의 미술가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한 워홀은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물질 만능주의를 그의 작품 속에서 표출하였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 산업의 영리성 국대화를 이루었다. 미술로 표현된 할리우드와 스타들에 대한 동경이 물질 만능주의와 출세 지상주의의 당시 사회적 추세와 같이 나타난다.

패션계에서의 워홀의 업적은 대중에게 친숙한 일러스트레이션 및 패션 디자인화로 파리 오뜨꾸찌르 디자이너 중심의 패션계를 미국 출신의 대중적인 디자이너들과 같이 소수를 위한 고급 상점에서부터 수퍼마켓에 이르기까지 시장성을 넓힌 것이다. 또한 패션 리더로써 세인의 관심과 주목속에서 독특한 시대를 선도하는 스타일로 워홀만의 룩을 형성하였다. 이는 워홀이 그의 일생동안 미술계를 대표하는 스타로 군림한 덕분에 그의 룩이 패션 리더의 역할을 특특히 한 덕분이다. 이러한 스타일은 워홀을 포함한 아방가르드한 댄디였던 동료들과 함께 독창적인 하위문화를 이루어 1970년대의 평크패션, 짧은이 중심의 스트리트 스타일, 나아가 최근의 헤체주의 패션에 이르기까지 적절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앞서의 논문이 1950년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워홀만의 룩과 패션계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는 곧 이어질 후속 논문에서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앤디 워홀은 두 세대- 촉 60여 년간, 그가 활동을 시작하였던 1950년

대 이후부터 21C를 -의 대중들의 기호를 선도하는 시대의 리더로서 그만이 표현할 수 있었던 루과 이미지로 새로운 스타일을 형성하여 미술가의 미술 활동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이 패션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강태희, '앤디워홀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월간미술」 12월호, 1992.
- (2) 루시 스미드, 김춘일(역), 「현대미술의 흐름 : 1945년 이후」, 미진사, 1992.
- (3) 루시 R. 리파드, 전경희(역), 「팝 아트」, 미진사, 1985.
- (4)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 (5) 박성봉(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5.
- (6) 시미즈 토모히사지음, 박시종 옮김, 「팝문화의 꿀과 독」, 개마고원, 1993.
- (7) 오진경, '앤디 와홀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이미지의 반복',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993 제5집.
- (8) 이홍복, '산업사회와 매스미디어 시대의 예술' 「앤디워홀」, 호암미술관, 1994.
- (9) 존 A. 위커, 정진국(역),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열화당, 1990.
- (10) 최효준, '앤디의 세계를 그대로 보기' 「앤디워홀」, 호암미술관, 1994.
- (11) Alloway, *Modern Dreams: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Pop*, New York: The Clocktower Gallery, 22 October 1987.
- (12) David Bourdon, *Warhol*, Harry N. Abrams Inc, 1989.
- (13) Gary Garrels, *The Work of Andy Warhol*, Bay Press, 1989.
- (14) Klaus Honneth, *Warhol*, Benedikt Taschen, 1993.
- (15) Linda O'Keeffe, *SHOES*, New York: Work Man Publishing, 1996.
- (16) Richard Martin 외 6명, *THE WARHOL LOOK GLAMOUR STYLE FASHION*, New York: A BULFINCH PRESS BOOK, 1997.
- (17) Patricia Baker, *FASHION OF A DECADE THE 1950S*, New York: Facts On File, 1991.
- (18) Paul Gardner, "Gee, What Happened to Andy Warhol?", *Art News* 79, Nov. 1980.